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3월 20일(목)

#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옐런, 양적완화(QE) 종료 후 6개월 이후 첫 금리 인상
- 2) 미국,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개월래 저점
- 3) 미국, 2순위 기업대출 가파른 회복세

#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러 제재 역풍 올라 英 금융가 비상
- 2) 중국 위안화 1년래 최저...절하 정책 약발

#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알리바바, 美 채팅앱 '탱고'에 2억 1500만 달러 투자
- 2) 스타벅스, "시가총액 두 배로 늘리겠다"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엘런, 양적완화(QE) 종료 후 6개월 이후 첫 금리 인상

- 지난 19일(현지시간) 재닛 엘런 미 연준 의장은 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가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힘
  - 첫 금리 인상 시기는 고용 시장 상황 등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고 강조, 이에 대해 주요 전문가들은 2015년 중반 이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
  - 한편 엘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%이하인 경우 금리 인상은 보류될 수 있다고 언급
  - 아울러 새로운 선제적 안내(포워드 가이드)가 연준의 정책적 의도에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실업률 하락에 따라 선제적 안내를 변경하였다고 밝힘
- 한편, 실업률은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
  -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 결정과 관련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압력, 기대 인플레이션, 금융시장 상황 등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기로 선제적 안내(포워드 가이드)를 변경 → 이는 실업률 목표치 6.5%를 없앤 것을 의미
- 엘런 의장은 선제적 안내가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

## 2) 미국,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개월래 저점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미노동부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2만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증가하였다고 보도
  - 이는 블룸버그가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2000건을 하회하는 수준
  - 변동성이 낮아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
- 한편,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지표 대부분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

## 3) 미국, 2순위 기업대출 가파른 회복세

- 지난 19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미국에서 2순위 기업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
  - S&P LCD(Leveraged Commentary and Data)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판매된 2순위 대출 규모는 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된 규모의 2배 이상에 달한 것임
- FT는 2순위 대출이 최근 몇 달 동안 다시 늘고 있는 것은 고수익 자산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러시아 제재 역풍 올라 英 금융가 비상

- 지난 19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영국 금융가에서 영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시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정치적 제재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
  - 크림 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대해 서방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런던 금융가가 이로 인한 자국 경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
- 또한 FT는 러시아에 무역 제재나 런던 금융권 거래 봉쇄 등의 제재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리의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
  - 러시아인들은 런던 부동산을 1천만 파운드 이상 소유,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한편, 전문가들은 서방의 최근 제재가 러시아에 가하는 타격이 크지 않아 영국에 있는 러시아인의 자금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

### 2) 중국 위안화 1년래 최저...절하 정책 약발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
-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전년의 최저점 수준으로 하락, 핫머니(단기투기자금) 유입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

- 이날 중국 상하이 외환 거래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오전 한때 달러당 6.2233위안까지 상승, 이는 지난해 3월중 최고치 수준
- 한편, WSJ도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실시한 위안화 절하 노력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, 지난달 중국에 들어온 해외 자금이 211억 달러로 5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보도
- o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도입된 환율 변동폭 확대는 그동안 위안화가 한 방향으로 절상될 것이라고 믿어 온 시장이 절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 1) 알리바바, 美 채팅앱 '탱고'에 2억 1,500만 달러 투자

- o 지난 20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 등 주요 외신들은 알리바바그룹이 미국 채팅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탱고(Tango) 지분 매입에 2억1,500만 달러를 투자, 최근 급부상 중인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주요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보도
- 알리바바가 올해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(IPO)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탱고와의 이번 거래로 모바일에서의 존재감 강화와 중국 외 시장으로의 확대에 도움을 받게 됐다고 평가
- o 한편,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고 알리바바의 주요 경쟁 업체인 텐센트는 위챗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(M&A)이 진행되는 분야로 맥쿼리은행은 모바일 메신저 앱 시장이 2017년까지 연 매출 25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

## 2) 스타벅스, “시가총액 두 배로 늘리겠다“

- o 지난 19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하워드 쉘츠 스타벅스 CEO가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을 1천 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
- o 스타벅스는 현재 64개국에 2만개의 매장을 보유, 최근에는 모바일 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
  - 스타벅스는 미국 내 매장 매출의 14%를 모바일 거래가 차지, 매주 모바일 결제가 500만 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
  - 쉘츠 CEO는 이미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모바일 결제가 다른 핵심 사업의 성장세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.끝.